

## 『삼국유사』 「탐상」편의 메타서사 읽기

— 신성 공간의 몰락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중심으로 —

윤예영\*

<차 례>

- I. 서론
- II. 「탐상」편의 플롯 구성
- III. 「탐상」편의 메타서사 — 신성 공간의 몰락에 대한 비극적 인식
- IV.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삼국유사』의 「탐상」편의 환유적 읽기를 통하여 역사서술의 플롯구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역사서술자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탐상」편 전체 텍스트를 기본 단위가 되는 사건들로 요약하고 이것들을 몇 개의 시퀀스로 묶어 보았다. 각각의 시퀀스는 <탐상이 신성한 시공간으로부터 비롯되다> → <인간이 신성의 계시에 응답하다> → <신성이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다> → <탐상이 세속적 시공간에서 소멸되다>로 요약할 수 있다.

각각의 시퀀스의 의미를 새겨봄으로써 「탐상」편 전체의 메타서사를 찾아낼 수 있다. 각 시퀀스에서 각기 다른 불탑과 불상으로 끊임없이 등장하는 탐상이 개별적으로 인식되었을 때에는 달리 「탐상」편 전체를 환유적으로 읽었을 때에는 '신성한 기원과 신이한 효험을 지닌 불탑과 불상이 세워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멸하고 쇠락하다'는 이야기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신성사를 일종의 몰락의 역사로 읽는 비극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역사서술자의 이러한 비극적 인식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 서강대학교

이것은 서술상의 곳곳에서 드러나는 부처의 연(佛緣)이 다했다는 서술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서술자는 이때의 불연(佛緣)을 신화적이고 순환적인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와 인과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이 땅의 신성의 역사가 앞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낭만적인 믿음보다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비극적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주제어** 삼국유사, 메타서사, 환유적 읽기, 비극적 플롯, 신성사

## I. 서론

『삼국유사』의 연구사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삼국유사』가 갖고 있는 풍부한 자료적 가치 덕분이기도 하며, 그 안에 쉽게 통합될 수 없는 다양한 가치와 형식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특정 텍스트를 따로 떼어내어 연구하기도 하고 전체를 이합집산하여 새로운 유형이나 주제를 중심으로 부분적인 연구를 해왔다. 따로 분리된 단위는 주로 ‘편’이거나, 편 밑의 ‘조’인 경우도 많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탐상」편은 다른 편목들과 달리 독자적으로 연구된 경우가 드물다. 「기이」편이나 「감통」편에 비해 서사성이 약하고, 인물중심이 아니라 공간 중심의 이야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탐상」편의 이야기들은 편목의 지시적 의미 즉 ‘탐과 불상에 관한 이야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여겨졌으므로, 편목과 그 안의 이야기들 사이의 해석적인 잉여가 있는 「피은」편이나 「감통」편처럼 적극적인 해석을 이끌어내지도 못했다. 그래서 「탐상」편을 독자적으로 다룬 연구는 『삼국유사』의 다른 편목들을 다룬 연구들에 비해 수적으로 적은 편이다.

홍윤식은 「탐상」편이 사찰의 건립과 불상의 조성, 경전과 사찰 등의 신봉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으며, 탐상이 어떻게 유래했는가에 따라 「탐상」

편 소재의 설화들을 해안표착형, 천상강림형, 지중출현형, 수도형 등으로 분류했다.<sup>1)</sup> 이기백은 탐상편이 불교적인 조형물에 대한 신앙적인 영험을 나타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불교의 힘을 대중에게 널리 깨닫게 하고자 한 것에서 「탐상 편 서술의 의의를 찾았다.<sup>2)</sup> 두 논의는 「탐상」편의 주제나 서술의의를 각기 다르게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차이는 삼국유사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송효섭은 「탐상 편에서 탐과 불상을 동사적인 기억을 함축한 명사적인 상징으로 보고, 이러한 상징이 시간의 약호 속에 존재할 때 동사적인 것과 결합함으로써 서사를 만들어낸다고 보았다.<sup>3)</sup>

이상에서 「탐상」편을 독자적으로 다룬 논의들은 대부분 불탐과 불상의 연기설화에만 주목해서 이들 설화를 유형화하거나 구조를 밝힘으로써 탐상편 전체의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반복되는 부분을 통해 전체를 이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읽기는 일종의 은유적 읽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유적인 읽기가 밝혀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탐상 편에서 실린 무수한 이야기들이 공유되고 전해지던 공동체의 인식일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삼국유사』의 미토스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취사선택하고 배열하며 어떤 특정한 맥락에 위치시키는 서술자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것은 미토스적 맥락이 아닌 로고스적 맥락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한편의 역사서술물로서의 「탐상 편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설화들의 층위보다 한 층위 위로 올라가야 한다.

역사는 객관적 사실들의 기록이기 이전에 한 편의 서술물이다. 역사가

1) 홍윤식, 「삼국유사와 탐상」, 『삼국유사와 한국고대문화』, 원광대출판국, 1985.

2) 이기백, 삼국유사 탐상편의 의의, 『두케이병도박사구순기념논총』, 지식산업사, 1987.

3) 송효섭, 명사적인 것에 각인된 동사적인 것의 기억들: 탐과 불상 편 의 상징 커뮤니케이션, 『초월의 기호학』, 소나무, 2002.

는 역사를 서술할 때 연대기의 사건들을 이야기의 요소를 지닌 사건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의미화의 체계 속으로 사건들을 배열하며 그러한 방법을 통해 뚜렷한 시작과 중간과 종말을 지닌 이해 가능한 과정으로 간주되는 일련의 모든 사건에 형식적 결합력을 부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에 플롯 구성(emplotement)을 제시함으로써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을 통해 모종의 이야기를 설명한다.<sup>4)</sup> 이때의 플롯을 각 사건들 사이에 서로 관계를 맺게 해주는 구조로 이해한다면<sup>5)</sup>, 이러한 관계맺음을 통해 플롯은 사건들 속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구성을 통해 발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플롯을 구성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일차적으로는 역사서술자이다. 역사서술자는 역사적 사건들에 특정한 플롯을 부여함으로써 사건들을 해석하고 이해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역사서술은 인간의 경험과 과거의 사건들을 투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재배열함으로써 어떤 메타서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전달한다.

역사서술자가 경험의 연속체를 분절하고 여기에 어떤 플롯을 구성함으로써 역사를 서술한다면, 역사를 읽는 독자는 반대의 방향에서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칠 것이다. 즉 하나의 연속적인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이것을 의미있는 단위들로 분절하고, 다시 유의미한 플롯으로 구성하여 받아들임으로써 역사를 이해할 것이다. 만일 쉽게 플롯을 재구성하기 어렵도록 과편적으로 역사적 사실이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자의 해석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탐상」편은 총 30개의 조로 이루어져있다. 이것은 텍스트에서 구분된 체재상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 경계를 허물고 재조직화 하여 하나의 이야

4) 헤이든 화이트, 『19세기 유럽의 역사적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91, pp.17-18.

5) 헤이든 화이트, 「리얼리티 제시에서의 서술성의 가치」, 석경정 외 역, 『현대서술이론의 흐름』, 숲, 1977, p.190.

기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자의 적극적인 해석행위가 필요하다.

서사를 주제와 시간에 따라 연결된 일련의 사건에 대한 상징적 제시라고 했을 때<sup>6)</sup>, 만일 「탐상 편」의 각조들로부터 사건들을 뽑아내고 그것들을 엮는 시간적 연속성과 주제적 지속성을 밝혀낸다면 「탐상 편」 전체의 메타서사를 엮어낼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이것은 처음 조에서부터 마지막 조까지 환유적으로 읽으면서, 각 조에서 추출한 사건들 사이의 틈을 매우면서 탐상편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스토리<sup>7)</sup>를 구성하는 행위이다.

본고는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하여 「탐상」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고 배열하는 서술의 층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역사서술자가 전달하는 메타서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탐상」편의 플롯 구성

탐상편의 시간적 연속성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각 조의 기사들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탐상」은 이후의 「의해」, 「감통」, 「효선」, 「피은」 편에 비해 각 조가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는 편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시간을 밝히는 서술들이 많이 나와 있는 편이다. 「탐상 편」의 각 조는 불탑과 불상의 기원과 효험을 주로 기록하고 있는데, 각 조의 시간적 순서는 대략 과거에서 서술자가 위치하는 고려 시대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8)</sup>

6) 로버트 스콜즈, 「언어, 서술과 반서술」, 석경정 외 역, 『현대서술이론의 흐름』, 숲, 1977, p.110.

7) 스토리란 특정한 통사론적 형태(처음-중간-끝 혹은 상황-변화-상황)를 가지면서 이 재료에 인간의 가치를 투사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격려하는 주제를 가진 서술이다. 로버트 스콜즈, 같은 책, p.112.

8) 탐상」편의 각 조는 서술 대상이 되는 탑이나 불상의 기원에서부터 소멸에 이르는

이러한 연대기적 배열은 「답상 편 전체의 시간적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전제에 불과하다.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중심 사건이 있어야 하며, 이것들이 사건의 연속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조의 중심사건들을 시간관계를 고려하여 패러프레이즈를 하고, 이것들을 다시 유사한 사건들끼리 묶어 몇 개의 시퀀스로 엮는다. 즉 「답상 편 전체의 텍스트를 의미있는 시퀀스로 분절하고 하나의 플롯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읽기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 이상적으로는 첫 번째 조에서부터 마지막 조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체 메타 서사의 구성요소가 되어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체 서사를 구성하는데 문제가 되는 조들이 있다.<sup>9)</sup>

시간적 추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각 조의 시간은 서로 겹치기도 하며 때로는 앞의 조가 뒤의 조보다 후대의 시간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스토리 구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조에서 언급되는 모든 시간을 포함하기보다는 패러프레이즈된 스토리 시간을 중심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순서	스토리 시간	순서	스토리 시간
1	동경홍륜사 금당 10성	16	27대 선덕여왕 - 지원 21년 갑신(1284)
2	전불시대	17	25대 진지왕
3	한나라(전불시대)	18	35대 경덕왕
4	아육왕 시대- 금관국 8대 질지왕	19	35대 경덕왕
5	고구려	20	28대 진덕여왕, 의상, 원효의 시기
6	신라 24대 진흥왕	21	고려 명종 11년(1180)
7	27대 선덕여왕	22	27대 선덕여왕(자장법사), 33대 성덕왕
8	28대 경덕대왕	23	자장법사 이후 신희거사
9	27대 선덕여왕	24	개원 7년 기미(719)
10	26대 진평왕 9년, 35대 경덕대왕	25	신라말
11	27대 선덕여왕	26	38대 원성대왕
12	54대 경명왕	27	신라, 병인년(906)-함흥원년(1065)
13	신라말, 고려(통화 10년, 대정 13년)	28	31대 신문왕(683)
14	32대 효소왕	29	신라
15	35대 경덕왕	30	신라

9) 먼저 첫 번째 조인 <동경홍륜사 금당 10성>의 경우에는 내용이 소략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플롯을 구성하는 주체인 독자는 「탐상」편 전체를 환유적으로 읽으면서, 각 조와 조 사이의 연결지점과 분기지점을 감지하고 그것을 의미화할 때, 그것은 철저하게 귀납적인 과정에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몇 개의 조를 읽고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그 조들 사이의 연관관계와 이후의 조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검토하면서 그 가설을 재수정하는 작업을 통해서 사건을 추상해야 한다. 즉 시간적인 연속성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읽기 과정을 통해 각 조의 시간적 순서를 고려해서 사건들의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간적 순서뿐만 아니라 앞뒤의 맥락 속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곧 각 조의 사건들로부터 하나의 시퀀스를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 조의 시간적 흐름에 주목하면서 몇 개의 조들이 모여 하나의 시퀀스를 이루는 과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시퀀스 1: 탐상이 신성한 시공간으로부터 비롯되다

<2> 가섭불 연좌석; 가섭불의 연좌석은 전불시대 절터인데, 이곳에 황룡이 나타나 왕이 황룡사를 짓다.

<3> 요동성 아욱왕탐: 고구려 성왕이 신비한 징표를 보고 땅 속에서 삼중토 탐, 지팡이와 신, 범서를 발견하다. 이로 인해 성왕이 신앙심이 생겨 칠중목탐을 세우다.

---

正徳本에서는 흥법」편 마지막에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탐상」편에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일연의 제자인 무극선사에 의해 추가된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기존논의를 따르고, 이 조목이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는 단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열두 번째 <흥륜사의 보현보살 벽화>, 열세 번째 <전후로 가지고 온 사리> 조는 앞뒤 조목의 스토리의 시간보다 훨씬 후대의 이야기가 앞서 나온 경우이다. 특히 <전후로 가지고 온 사리>조는 무극선사에 의해 추가된 조이기 때문에 담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나 체재상의 문제에 있어서나 뒷부분으로 배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김두진, 삼국유사의 체제와 내용, 『한국학논총』,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0.

<4> 금관성의 파사석탑: 서역의 아유타국의 공주가 부모의 명을 받아 동으로 향해 가려다 수신의 노여움을 사 돌아가다. 부왕이 석탑을 실어주자 순조롭게 항해를 해 금관국에 도달하다. 질지왕 때 처음으로 절을 세우다

<가섭불의 연좌석>(2)은 과거 칠불 중 여섯 번째 부처인 가섭불이 좌선을 했던 바위이다. 이것은 불교가 외부로부터 전파되기 이전에 이미 그보다 훨씬 오래 전에 부처가 이 땅에서 설법을 베풀었음을 의미한다.

<요동성의 아육왕탑>(3)은 아육왕 즉, 인도의 아쇼카왕이 귀신의 무리에게 명하여 인구 9억 명이 사는 곳마다 탑 하나씩 세우게 했다고 하여, 염부계 안에 8만 4천 개를 세워 큰 돌 속에 감추어 두었던 것으로서 그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 세워졌는데, 이후 고구려 성왕에 의해 발견된다.

<금관성 파사석탑>(4)은 앞의 두 조의 이야기와 달리 탑이 외부로부터 들어온다. 공주가 처음에 배를 타고 항해를 한 이유가 단지 부모의 명이라고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는 않다. 그 목적지 역시 처음부터 가야국이었던지도 분명치 않다. 단지 동으로 향해 가려 하다가 수신의 노여움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파사석탑을 실은 후에야 순조로운 항해를 하고 금관국 남쪽 해안에 정박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으로 보아 애초에 탑을 가야국에 전하려는 것이 본래 목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후에 수로왕의 부인이 된 허황후가 무사히 가야국에 도착하게 한 능동적 작인을 탑으로 볼 수 있다.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탑과 불상이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으로부터 온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때의 시간적, 공간적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신화적인 거리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멀리에서 비롯된 것인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보다는 그것이 신성과 맺는 관계가 더 중요하게 인식된다. 즉 가섭불 연좌석은 가섭불이 앉아있던 자리이기 때

문에 신성한 돌이며, 아육왕탑은 진신사리를 봉안한 탑이기 때문에 신성한 것이다. 즉 이때의 탑은 신성한 것을 재현하거나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일종의 환유적 대체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불탑과 불상의 의미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속해있던 시공간과 현재의 시공간을 매개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그곳과 이곳을 연속선상에 있게 한다. 즉 가섭불 연좌석은 과거의 부처가 이땅에 있었음에 대한 증거이며, 아육왕탑과 파사석탑은 이 땅이 아육왕의 불교 중흥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었음에 대한 증거이다. 그러므로 탑이 발견되는 그 시간, 그 장소 역시 신성한 시공간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 ② 시퀀스 2: 인간이 신성의 계시에 응답하다

<5> 고구려의 영탑사 : 고승 보덕이 산방 노승의 청을 들어 불경을 강연해 주자, 신인의 계시에 따라 땅 속에서 7층 석탑을 발견하고, 절을 짓다.

<6> 황룡사의 장륙존상 : 진흥왕이 용궁 남쪽에 궁궐을 지으려 하다. 그곳에 황룡이 나타나자 궁궐 대신 황룡사를 짓다. 아육왕의 황금 황철이 배를 타고 신라로 들어와 진흥왕이 이것으로 불상을 주조하다. 장륙존상을 황룡사에 모셨더니, 불상에서 눈물이 발꿈치까지 흘러내리다. 대왕이 세상을 떠나다.

<7> 황룡사의 9층탑 : 자장법사가 신인의 계시를 받다. 당나라 황제가 준 불경, 불상, 가사, 폐백 등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오다. 황룡사 9층탑을 만들어 오대산에서 받은 사리 백 알을 탑의 기둥과 통도사 계단 대화사 탑에 나누어 모시다. 고구려왕이 신라를 치려다 신라의 삼보를 두려워하여 침범할 계획을 중지하다.

<8> 황룡사의 종 · 분황사의 약사동상 · 봉덕사의 종

<9> 영묘사의 장륙존상

<10> 사불산 굴불산 만불산: 진평왕 9년에 사불산이 하늘에서 떨어지자 왕

이 그 옆에 절을 세운다. 경덕왕이 땅 속의 염불소리를 듣고 굴불산을 파내고 그 옆에 절을 세운다. 경덕왕이 대중황제를 위해 공장에게 명하여 가산을 만들어내다.

<11> 생의사 석미륵 ; 선덕여왕 때 중 생의는 꿈에 한 중이 자신이 묻혀 있는 곳을 가리키며 자신을 꺼내어 고개 위에 묻어 달라고 말한다. 꿈에서 깨어난 생의는 그 자리를 팠더니 석미륵을 발견하고 그 옆에 절을 세운다.

<고구려의 영답사>(5), <사불산·굴불산·만불산>(10), <생의사 석미륵>(11)은 첫 번째 시퀀스와 마찬가지로 불교적 상징물들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이 발견된다. 그러나 첫 번째 시퀀스의 이야기들은 신성한 기원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신성과 인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었던 반면 두 번째 시퀀스에서 인간에 의해 발견되는 탑과 불상들에서는 이처럼 기원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대신 신인의 계시, 땅 속의 염불소리, 예지몽과 같은 징조를 통해 답이 드러난다.

답이 발견되기 이전의 이러한 징조는 탑상 혹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초월적 존재가 인간에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이며, 이것을 해독한 인간은 탑을 발견하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을 세운다. 그러므로 이때 징조는 탑을 가리키고, 탑은 다시 절을 가리키는 환유적 관계를 맺는다. 한편으로 이때 징조, 탑, 절은 각각 신성함에 대한 각기 다른 방식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신인의 계시, 땅 속에서 들려오는 염불소리, 예지몽은 신성한 현상이며, 탑과 절은 그러한 신성함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상징적으로 재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의 탑상은 절에 대한 지표이면서 동시에 신성함에 대한 상징이다.

<황룡사의 장륙존상>(7)과 <황룡사 9층탑>(8)은 신성의 부름과 이에 응

답하는 인간의 힘이 만나서 만들어진다. 장륙존상은 인도의 아육왕이 제 조하려다가 실패하여 인연이 있는 국토에 가서 장륙존상을 이루어 달리는 축원과 함께 무려 천삼백 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온 황금을 가지고 진홍왕이 만든 것이다. 황룡사의 9층탑도 자장법사가 중국에서 만난 신인의 명으로 만들었는데, 중간에 백제의 공인이 자신의 나라를 위해 만들지 않으려 했으나, 초월적인 힘에 순응하여 완성시킨다. 이때 인간의 역할은 신성의 계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그 과업을 성취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사불산·굴불산·만불산>(10) 가운데 만불산의 경우에는 사불산, 굴불산과는 달리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의 힘으로 갖가지 비단과 보배로 꾸민 인공물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비록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마지막 찬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불산, 굴불산, 만불산을 만들어 낸 것은 각각 하늘, 땅, 사람에 미친 부처의 조화, 즉 불가의 초월적인 힘으로 인식된다.

### ③ 시퀀스 3: 신성이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다

<12> 홍륜사의 보현보살 벽화

<13> 세 곳에 나타난 관음과 중생사; 중국의 신공이 꿈속에서 관음을 친견하고 십일면관음보살상을 그리고 중생사의 관음보살상을 만든다. 최은함이 관음상 앞에 기도를 하여 전쟁 중에 아기를 구하다. 성태법사가 관음상에 기도하여 시주를 구하다. 점승이라는 중이 관음보살의 보호로 친의천사의 시험을 통과하여 절의 주지 자리를 지키다.

<14> 백률사; 부레랑이 말갈족에 잡혀가고, 나라에서 현금과 신적이 도둑맞다. 부레랑의 부모가 백률사 부처에게 기도하여 적에게 잡혀갔던 아들을 되찾다. 혜성이 나타나자 현금과 신적에 봉작하다.

<15> 민장사; 보개가 민장사 관음상에 기도하여 난파되었던 아들을 구하다.

<17> 미륵선화 미시랑과 진자사; 진자가 홍륜사 미륵상에 기도하여 미륵불

이 화랑으로 화신하다.

<18> 남백월 이성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백월산에서 부득은 미륵불에 기도하고 박박은 아미타불을 염송하여 각각 미륵불과 무량수불이 되다. 경덕왕이 백월산에 남사를 짓고 미륵존상과 아미타불상을 만들어 모시다.

<19> 분황사의 천수관음에게 빌어 눈먼 아이가 눈을 연다; 희명이 분황사 천수관음에게 기도해서 눈먼 아이의 눈을 뜨게 하다.

<20> 낙산 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 의상이 낙산에서 관음을 친견(親見)한 후 불전을 짓고 관음상을 만들다. 원효가 관음을 친견하고자 했으나 하지 못하다. 굴산조사가 정취보살을 친견하고 불전을 짓고 정취보살의 불상을 만들어 모시다. 걸승이 몽고의 침입에서 불상을 지키고 자기의 목숨을 보전하다. 조신이 낙산사의 관음보살에게 기도하여 꿈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깨달음을 얻어 정토사를 세우다.

<21> 어산의 부처 영상

<22> 오대산 5만 진신; 자장법사가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지 못하다. 보천 효명 태자가 오대산에서 5만 보살에 예를 드리고 도를 닦다. 효명태자가 왕위에 오르고, 보천태자는 오대산에서 득도하다.

<23> 오대산 월정사의 다섯 성중; 신희거사가 자장법사가 머물던 오대산 월정사에서 오류 성중을 만나다.

<세 곳에 나타난 관음과 증생사>(13), <민장사>(15)에서는 관음보살이 전쟁 중에 아기의 목숨을 구하거나, 배를 타고 나갔다가 난파된 사람을 되돌아오게 한다. 그러나 관음보살의 존재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관음상 앞에 두고 기도를 하고 보름 후에 와서 봤더니 젓먹이가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목욕한 듯한 모습으로 젓냄새를 풍기고 있으며 자라서는 남들보다 총명함이 더 뛰어났다는 서술에서 부모가 없었던 사이에 관음보살의 보살핌을 받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잃어버린 아들을 구하기 위해 관음상 앞에서 이레 동안 기도를 했더니 아들이

갑자기 불상 뒤에서 나타나고, 아들은 어떤 이상한 스님 덕분에 오나라에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증언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백률사>(14)에서는 소원성취와 부처의 힘 사이의 관계가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나는데, 말갈족에게 잡혀갔던 부례랑이 백률사 부처님 앞에서 저녁 기도를 올리는 중에 부례랑과 안상 두 사람이 불상 뒤에서 나타나는데 <민장사>조와 마찬가지다. <분황사의 천수관음에게 빌어 눈먼 아이가 눈을 얻다>(19)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보다 직접적이고 단순하게 나타난다. 어머니가 관음상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 갑자기 아이의 눈이 뜨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모두 인간사의 현실적인 문제가 성스러운 힘을 통해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다. 이때의 불상은 모두 절에 모셔져 있고, 기도의 대상이 되는 조형물이지만, 한편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결핍의 상황을 해소시키는 힘을 가진 존재이며, 그 힘은 한 중·배고픈 아이를 젖을 주는 여인 등의 인간화된 모습으로 나타나 문제 상황에 직접 개입한다. 그러므로 이야기 세계 내에서 이들 초월적인 행위자와 불상·불탑이 동일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살의 역할은 이처럼 중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조력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구도자들이 도를 얻고, 해탈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 <미륵선화 미시랑 진자사>(17)에서 진자는 미륵불이 화랑으로 화신하여 친견하기를 소망하고, <남백월 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18)에서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은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기를 소망한다. <낙산 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20)조의 의상대사와 원효는 관음보살을, <오대산 오만진신>(22)조의 자장법사는 문수보살을 친견하고자 한다. 이것은 현실적인 결핍이 아니라 성스러움에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자 하는 욕망이자,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스러움에 참여하고자하는 종교적 결핍의 상황이다.

결핍의 상황이 보다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결핍 해소의 방식도 보다 복잡하게 나타난다. <노힐부득 달달박박>(18)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성불을 하기 위해 수행을 하고 이 과정에서 관음보살이 나타나 부득의 성불을 도와줘서 먼저 미륵불이 된다. 그리고 마음의 장애 때문에 미처 부처를 알아보지 못한 박박은 뒤늦게 부득이 목욕하고 남은 물로 목욕하고 무량수불이 된다. <낙산 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20)조에서 의상은 관음보살을 친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나, 원효는 노힐부득과 마찬가지로 관음을 마주치고도 알아보지 못한다. 굴산조사 범일의 경우에도 당나라 개국사에서 정취보살의 현신을 만났으나 알아보지 못하고 뒤늦게 땅 속에서 불상을 발견하고 절을 세운다.

이상의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인간의 욕망이 탑상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이다. 인간의 욕망은 때로는 잃어버린 가족의 생환을 기원하는 세속적인 욕망이고, 때로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한계 자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욕망이다. 욕망이 성취되는 방식은 욕망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점은 인간이 불상이나 불탑에 기원을 하면, 불상이나 불탑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육화되어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소원을 성취시켜준다. 이때 불상이나 불탑은 첫 번째 시퀀스에서처럼 그 자체가 신성한 기원의 일부분이라기보다는 어떤 신성한 힘을 표상하는 상징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육화된 존재의 지표이기도 하다. 첫 번째 시퀀스에서 가섭불 연좌석이 성스러운 것으로 인식된 까닭은 그것이 진짜 전불시대의 부처가 설법을 베풀었던 자리이기 때문이지만, 세 번째 시퀀스의 관음상은 관음의 친견에 대한 증거인 동시에, 인간의 소망을 성취시켜주는 보살의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전자가 신성에 대한 환유적 대체물이라면 후자는 은유적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시퀀스는 불상이나 불탑을 매개로 신성이 인간의 기

도에 응답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 ④ 시퀀스 4: 탐상이 세속적 시공간에서 소멸되다

- <24> 남월산; 김지성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감산사와 돌미륵을 만든다.
- <25> 천룡사; 천룡사의 시주가 두 딸을 위해 절을 세우다. 신라 말기에 절이 파괴되다. 최은함의 자손 최제안이 이 절을 증축하다. 그는 죽어서 절을 지키는 신이 되었다.
- <26> 무장사의 미타전; 무장사의 한 노승이 꿈에서 이 절터에서 진인이 설법하는 것을 보았다. 명덕대왕이 숙부 파진찬을 추모하여 무장사를 세우다. 계화왕후가 대왕을 위해 아미타 불상을 만들어 모시다. 미타전은 허물어지고 절만 남다.
- <27> 백엄사의 돌탑과 사리; 신라때 북청택 터에 백엄사를 지었다가 중간에 오랫동안 헐어 폐지되다. 병인년에 양부스님이 이 절을 고쳐 짓고 주지가 되다. 뒤이어 공양 스님, 신탭스님이 주지를 지내다. 득오미정대사 수립이 절의 상규를 정하다.
- <28> 영취사; 신문대왕때 재상 장산국이 온천욕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매에 쫓기는 꿩이 우물 속에서 새끼 두 마리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땅을 점쳐 보고 절을 세울만하다 하여 왕에게 청해 현청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절을 세우다.
- <29> 유덕사; 신라 최유덕이 자기 집을 내 놓아 절로 만들다.
- <30> 오대산 문수사 석탑기; 옛날 연곡현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물속에서 탑이 쫓아와 탑의 그림자를 본 물고기들이 모두 달아나 고기를 잡지 못했다. 화가 난 어부가 절에 와서 탑의 그림자를 보고 부수고 가버렸다. 비구 처현이 탑을 뜯 한 가운데로 옮겨 탑의 영검이 사라졌다가 일관의 말을 듣고 동쪽으로 다시 옮겼다.
- <16> 전후로 가지고 온 사리

<남월산>(24), <천룡사>(25), <무장사의 미타전>(26)에서 불상과 절들은 사람들의 손으로 가족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이것은 첫 번째 시퀀스에서 신성한 시공간에서 유래하는 탑상이나, 두 번째·세 번째 시퀀스에서처럼 인간에 의해 발견되거나 만들어졌다 해도 탑과 불상을 성현(hierophany)의 증거로서 혹은 인간의 욕망을 성취시켜주는 초월적인 존재의 상징으로 인식했던 것과는 다르다.

<백암사의 돌탑과 사리>(27)에서는 절을 짓게 된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다만 중간에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으며, 뒤에 주지가 들어와 고치고 절의 범규를 정하는 등 제도적인 공간이 된다.

<영취사>(28)에서는 매에 쫓기는 꿩이 우물 속에서 새끼 두 마리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점을 쳐서 그 터에 절을 짓는다. 이전의 시퀀스에서 사찰의 기원이 대부분 초월적인 존재가 절터를 알려주거나, 돌미륵이 땅 속에서 발견되는 등 초월적인 계시, 즉 신성과의 소통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여기에서는 인간이 기이한 자연의 현상을 일종의 징조로 받아들여서 점을 치는 행동을 통해 절터를 결정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일방적으로 자연의 징조를 해석해서 임의로 절을 짓는 것이다. <유덕사>에서는 아예 인간이 살던 집을 고쳐서 절을 짓는다.

<오대산 문수사 석탑기>(30)에서는 이러한 세속화의 경향이 더욱 심하게 드러나는데, 이전에 오대산이 진신이 상주하는 명산으로 인식되었고, 탑과 불상은 그러한 신성의 환유물로 인식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인간의 생업을 방해하는 방해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전후로 가지고 온 사리>(16)의 원래의 위치는 텍스트상에서는 시퀀스 3에 속한다. 그러나 스토리의 시간상 다루고 있는 내용이 모두 서술상의 현재인 '本朝' 즉 고려시대이므로 시퀀스 4로 옮겨서 읽을 수 있다. 이 조에서는 자장법사가 선덕여왕 때에 당나라에서 가져온 부처의 머리뼈, 어

금니, 사리 백 개, 통일신라 말에 당나라에서 들여온 부처의 어금니, 진흥 왕대와 통일신라 말 진나라, 당나라에서 들여온 불경의 행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원래 탐이라는 것이 부처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탐상 편에 부처의 신체의 일부인 사리나 어금니 그리고 부처의 말을 담은 불경의 이야기를 위치시킨 것은 당대의 지식 체계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조에서는 이러한 물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왔으며, 이것들이 고려 조에서 여러 차례의 병란을 겪으면서 어떻게 소실되었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시퀀스 4에 속하는 다른 조목들과 마찬가지로 부처의 몸의 일부인 사리나 어금니 그리고 경전임에도 불구하고 소실되거나 도둑질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더 이상 탐과 불상은 신성한 기원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도 않으며, 신이로운 이적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그것은 단지 인간의 손에 의해 인간을 위해 만들어지며, 그것은 때로는 소실되거나, 도둑맞기도 하며, 그 영감이 사라지기도 한다. 최초의 시퀀스에서 탐상이 어떤 물리적인 조건을 넘어서는 강력한 신성한 상징 그자체로 여겨졌다면, 마지막 시퀀스에서는 신성을 모방한 인공물 그 이상의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다.

이상에서 「탐상 편 전체 텍스트를 기본 단위가 되는 사건들로 요약하고 이것들을 몇 개의 시퀀스로 묶어 보았다. 각각의 시퀀스는 <탐상이 신성한 시공간으로부터 비롯되다> → <인간이 신성의 계시에 응답하다> → <신성이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다> → <탐상이 세속적 시공간에서 소멸되다>로 요약할 수 있다.

이처럼 각각의 시퀀스의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 「탐상」편 전체의 메타서사의 윤곽이 드러난다. 각 시퀀스에서 각기 다른 불탐과 불상으로 끊임

없이 등장하는 탐상이 개별적으로 인식되었을 때와는 달리 「탐상」편 전체를 환유적으로 읽었을 때에는 ‘신성한 기원과 신이한 효험을 지닌 불탐과 불상이 세워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멸하고 쇠락하다’는 이야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퀀스의 연속을 「탐상」의 스토리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즉 이 네 개의 시퀀스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주제적 연속성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각의 시퀀스의 의미와 그 시퀀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Ⅲ. 「탐상」편의 메타서사 — 신성한 공간의 몰락에 대한 비극적 인식

「탐상」편 전체를 네 개의 시퀀스로 요약하고 이들 사이의 시간적 연속성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주제적 지속성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단순히 시간적 연속성이 있다면 그것은 연대기에 불과하지 서사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먼저 파편적인 이야기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각의 시퀀스들의 행위자들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행위항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탐상」편 전체에서 무수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탐과 불상들은 사실은 개별 행위자에 불과하며, 이들의 이야기를 하나의 플롯으로 읽기 위해서는 동일한 행위항(actant)의 행동의 연속, 즉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이 있는 스토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얻은 후에 주제적 지속성은 서술자의 서술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 이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밝혀진 대략의 흐름에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즉 “왜

이렇게 시작되는가?”, “왜 이렇게 끝나는가?” 등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질문은 파편적인 이야기에 어떤 일관성과 유의미함을 부여하고자 하는 독자의 심리적 충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구성된 이야기이지 선형적으로 부여된 이야기는 아니다.<sup>10)</sup>

그렇다면 우선 ‘불탑이 발견되다’, ‘불상이 인간을 호명하다’, ‘인간이 미륵상에 기도를 하다’, ‘불상이 파손되다’와 같은 구체적인 기술들을 묶을 수 있는 행위항은 무엇인가. 즉 ‘가섭불 연좌석’에서부터 ‘문수사 석탑’을 이을 수 있는 고리는 무엇인가?

「탑상」편의 각각의 이야기들이 탑, 불상, 사리, 불경 등 불교의 중요한 상징물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상징물이라거나 예술품으로만 볼 수 없다. 즉 사리나 불경 같은 것은 부처의 몸과 부처의 말이며, 불상과 탑은 부처의 사리를 담고 있는 어떤 지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교적 상징물들은 불성(佛性)의 환유적 대체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환유적 대체물들은 그것이 있는 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성인(聖人)이 설법을 베풀었던 장소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일 때도 있으며, 그곳에서 부처를 친견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상징물들은 그 상징물이 있는 공간 자체와 또 다시 환유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정리하자면 탑과 불상들은 보이지 않는 불성, 즉 현세 너머에 있는 어떤 초월적인 시공간에 대한 기억인 동시에,

10) 다양한 언표화 전략 중 하나인 이야기(narrative)는 다른 것들과는 차별적 지위를 차지한다. 인간은 단편적인 사건들에 서사의 형식을 부여하고자 하는 보편적인 요구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일종의 심리적 충동이라고까지 여겨진다. 파편적인 경험들을 선택과 배제의 과정을 통해 유의미한 이야기로 만들어 내는 것은 알고자 하고, 질서를 주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종의 뿌리 깊은 육체적 정신적 과정이다  
헤이든 화이트, 리얼리티 제시에서의 서술성의 가치, 석경정 외 역, 『현대서술이론의 흐름』, 솔, 1977, p.182,  
로버트 스클즈, 「언어, 서술과 반서술」, 위의 책, pp.114-115.

그것이 세워지는 곳을 다시금 성스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탐상 편」의 이야기에 나오는 각기 다른 탐이나 불상 등의 성물은 사실은 신성이 매개된 공간이 각기 다른 양태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별의 불상과 불탑을 ‘신성한 공간’이라는 주어로 치환해서 앞에서 요약한 시퀀스들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 「탐상 편」의 전체의 이야기는 단지 개개의 불탑과 불상이 발견되고 주조되며 또한 훼손되는 기록들의 편철이 아니라, 신성한 공간이 탈신성화되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비극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에서 벗어나<sup>11)</sup> ‘비극적인 것’ 즉 ‘운명의 아이러니나 신들의 잔혹함에 대한 감정’이라는 광의의 개념을<sup>12)</sup> 따른다면 「탐상 편」 전체의 이야기를 비극적 플롯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신성한 공간이 탈신성화되는 이야기가 왜 비극적인가? 비극의 주인공이 대부분 보통 이상의 인물이 주인공이며, 어떤 한계상황에 맞부딪혔을 때 좌절함으로써 운명 혹은 자연의 이치에 굴복하는 패턴을 지닌다. 「탐상 편」의 공간은 신성한 기원과 맞닿아 있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이것은 인간 주인공으로 비유하자면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난 영웅이나, 인간과는 차별되는 신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이 공간에 부여된 신성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마치 인간이 부나 권력과 같은 가치를 잃듯이 신성이라는 가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거나 훼손될 수 있다. 인간의 비극이 영웅의 실

11) 비극을 장르론적 관점에서 정의한 대표적인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비극을 정의했다. ‘진지하고 일정한 크기를 가진 완결된 행동을 모방하며, 쾌적한 장식을 가진 언어를 사용하되 각종의 장식은 작품의 상이한 제부분에 따로따로 삽입된다. 비극은 드라마적 형식을 취하고 서술적 형식을 취하지 않으며, 연민과 공포를 환기시키는 사건에 의해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행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저, 천병희 역, 『시학』, 문예출판사, 1994, p.47.

12) 제라르 주네트 저, 최애리 역, 원텍스트 서설, 김현 편, 『장르의 이론』, 1987, p.69.

수나 도덕적인 결함 때문에 초래되는 것이라면, 「탐상 편」의 비극은 애초에 「탐상 편」의 공간은 세속의 공간에 세워진 성스러운 공간이며, 결코 영원히 초월적이며 성스러운 공간이 될 수 없다는데서 기인한다. 깨달음을 얻어 성불한 인간의 이야기가 희극이라면, 금기를 어기거나 도덕적인 장애 때문에 성불하지 못하는 인간의 이야기는 비극이다. 종교의 범주에서 언젠가 이 양상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전자가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인간이 동일시의 대상이라면 후자는 인간존재의 한계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다.<sup>13)</sup> 이러한 비극적 아이러니가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공간의 이야기에 투영되었다고 바꿔서 생각했을 때, 「탐상 편」은 한때의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공간이 쇠락하고 몰락하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

탐상을 만들고 건설하는 일은 곧 불국토의 건설이다. 이때의 불국토는 불교적 이상향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땅의 불국토를 의미한다. 그러나 신성한 땅은 신성함이 깃들 때에만 신성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비극의 주인공이 세계와의 투쟁에서 그 고결함을 잃을 때, 몰락하듯이 한때의 신성했던 시공간은 영원히 신성한 공간으로 남을 수 없다. 그렇다면 한때 이곳이 부처가 현존하던 땅, 부처와 직접적인 인연이 있었던 땅이라는 수많은 증거들과 기억들인 탑과 불상을 앞으로 또다시 성스러운 공간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나 의지에 대한 표상으로 읽을 수는 없을까? 만일 그렇다면 「탐상」편이 탑과 불상의 소멸과 쇠락의 이야기로 끝났다고 해서 비극적인 플롯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13) 종교를 인간이 영원에 참여하고자 하며 지상의 허무와 일회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때, 종교적 인간은 숙명적으로 자신이 지닌 한계를 극복할 수 없으며,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에 의해 그 한계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실존 자체가 비극적 아이러니를 갖게 된다.

김열규, 「한국문학과 비극적인 것」, 『한국문학과 민속연구』, 일조각, 1975, pp.192-193.

기본적으로 「탐상 편이 그리고 있는 세계는 불교의 신화적인 시공간으로 순환적인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이다. 그러므로 ‘이땅’이 인연이 있는 땅이 된 이유는 어떤 논리적이거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불연(佛緣)’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아래와 같이 반복되는 서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너희 나라의 황룡사는 곧 석가불과 가섭불이 강연했던 곳이므로 연좌석이 아직도 있다. 그러므로 인도 아육왕 황철 약간을 모아 바다에 띄웠는데 1천 3백여년이나 지나서 너희 나라에 도착되어 불상으로 만들어져 그 절에 안치되었던 것이다. 대개 위덕의 인연이 그렇게 시킨 것이다.(汝國皇龍寺. 乃釋迦與迦葉佛講演之地. 宴坐石猶在. 故天竺無憂王. 聚黃鐵若干斤泛海. 歷一千三百餘年. 然後乃到而國. 成安其寺. 蓋威緣使然也)<sup>14)</sup>.”

“이 세상 어느 곳이 진향이 아니라만 향화의 인연은 우리나라가 으뜸이라 아육왕이 착수 못한 것이 아니라 월성 옛터를 찾아온 것이니(塵方何處匪眞鄉. 香火因緣最我邦. 不是育王難下手. 月城來訪舊行藏)<sup>15)</sup>”

“부처님이 다만 진자의 정성에 감동된 것만은 아니다. 아마 이땅에 인연이 있었으므로 종종 나타났던 것이다.(大聖不獨感慈之誠款也. 抑有緣于茲土 故比比示現焉)<sup>16)</sup>”

이상의 서술들은 「탐상 편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서술되는 ‘인연(因緣)’에 관한 서술이다. 이 땅이 한 때 신성했던 까닭은 부처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탐상 편에 그려진 세계의 믿음이다.

그러나 「탐상 편을 그리고 있는 세계, 서술자의 세계는 이미 ‘인연’이 다한 세계이다. 탐과 불상이 기원하고 그것이 신비로운 이적을 일으키는

14) 해석은 다음을 따랐다. 이재호 역, 『삼국유사』, 숲, 1999, p.31.

15) 같은 책, p.32.

16) 같은 책, p.95.

역사적 과정을 통해 불국도가 탈신성화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탐상 편 전체의 메타서사는 이미 시작에서부터 이러한 비극적 비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두 번째 조 <가섭불 연좌석>에서는 찬시 “불교의 침체함은 아득히 기억할 수 없는데 오직 연좌석만은 의연히 남았구나 상전이 몇 번이나 벽해가 되었는데 애뜻이도 우뚝이 그 자리에 남았구나(惠日沈輝不記年. 唯餘宴坐石依然. 桑田幾度成滄海. 可惜巍然尚未遷)”를 통해 신성의 역사는 점점 나아지거나, 혹은 나아질 것이라는 낭만적 믿음보다는 현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출발점으로 해서 ‘운명의 수레바퀴의 정점’<sup>17)</sup>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몰락해 갈 수밖에 없다는 비극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조 <황룡사 장륙존상>, <황룡사 구층탑>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불전과 탑이 몽고의 침입으로 인해 손실되었다든가, 벼락을 맞아 훼손되고 다시 증축된 사실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역사서술에서 일반적으로 재이(災異)를 기록하는 관습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도 있으나, 「탐상 편 전체의 텍스트를 환유적으로 읽는 과정에서는 초월적인 시공간이 탈신성화되는 징후로도 읽을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전후 사리>조이다. 황실에서 부처의 어금니를 도둑맞았다가 찾은 사건을 두고 서술세계 내부의 인물들은 부처의 어금니의 원래의 인연대로 기한이 다 차서 돌아간 것인지, 혹은 국난(國難)이 심하기 때문에 평화로운 나라로 떠나간 것인지 혹은 도둑질당한 것인지 의심을 한다<sup>18)</sup>. 하지만 결국 잃어버린 불아함의 일부와 어금

17) 노스롭 프라이 저,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p.296.

18) “내가 부처의 어금니를 잃은 후 스스로 네 가지 의심이 생겼소 첫째 의심은 천궁의 7일 기한이 차서 하늘로 올라갔을까? 둘째의 의심은 국난이 이처럼 심하니 부처의 어금니가 신성한 것이므로 인연이 있는 평화로운 나라로 옮겨갔을까? 셋째 의심은 재물을 탐낸 소인이 그 함을 도둑질했다가 구렁에 버렸을까(自生四疑. 一疑天宮七

니를 다시 찾고, 재를 올려서 수많은 사리를 다시 찾게 된다. 그리고 1270년 강화에서 개경으로 환도할 때 난리가 더욱 심했고, 그 가운데 심감선사가 목숨을 걸고 불아함을 지킨다. 그러나 서술자는 심감선사가 보존한 어금니는 아마 가짜일 것이며, 이미 천제가 의상법사에게 약속한 기한인 칠일이 지나 이미 하늘로 올라갔을 것이라고 추론한다.<sup>19)</sup>

서술자는 ‘인연’을 초월적이거나 순환적인 법칙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 그리고 자연 현상과 인과론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불연이 운명적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다하게 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재난에 의해 상실된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 너머에 있는 어떤 법칙에 의해 언젠가 다시 이곳이 불교의 이상향이 될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현재에 대한 염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과거, 신화적인 과거를 그리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탐상」편의 서술자는 순환적이고 신화적인 논리가 지배하는 불교적 신화들을 현세에 대한 비극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편의 비극으로 구성했으며, 이러한 인식은 「탐상」편의 메타서사에서뿐만 아니라 서술자의 서술 곳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비록 「탐상」편의 미토스는 영원한 이상, 신성과 상호소통하는 세계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그것의 로고스는 일종의 종말론적인 역사서술의 의식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겨진 것(遺事)’을 기록하는 것이 현세에 닥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의 발현, 즉 호국불교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은 『삼국유사』에 그려진 세계와 그것을 그리고 있는 세계를

---

日限滿而上天矣. 二疑國亂如此, 牙既神物, 且移有緣無事之邦矣. 三疑貪財小人, 盜取函幅, 棄之溝壑矣. 四疑盜取珍利)

일연, 같은 책, p.77.

19) 위의 책, p.84.

구분하지 않는 데서 오는 오해일 수도 있다.

#### IV. 결론

본고는 『삼국유사』의 「탐상 편」의 환유적 읽기를 통하여 역사서술의 플롯구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역사서술자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탐상 편」 전체를 각 조의 시간적 연속성에 유의하여 네 개의 시퀀스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았다. 먼저 첫 번째 시퀀스는 <탐상이 신성한 시공간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으며, 불탑과 불상이 발견되거나 세워지는 공간이 과거의 불교적 이상향, 즉 과거불이 존재했던 시대 혹은 아유타왕이 8만 4천개의 탑을 세우던 그 시대와의 연속성을 탐과 불상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곧 이 땅이 과거에는 신성한 땅이었음에 대한 믿음의 언술이다.

두 번째 시퀀스는 <인간이 신성의 계시에 응답하다>로 요약할 수 있으며, 탐상을 통해 드러나는 신성한 계시를 인간이 수행하는 이야기이다. 이때 인간의 행위는 탐과 불상을 주조하고 그것을 세움으로써 신성한 시공간을 더욱 널리 확대하고, 복제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퀀스 <신성이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다>는 두 번째 시퀀스에서의 관계가 역전된다. 앞에서는 신성이 인간을 불렀다면, 여기에서는 인간이 신성을 향하는 것이다. 인간은 탐상과 불상을 통해서 세속적인 혹은 성스러운 욕망을 성취하기를 기도하고 탐과 불상의 힘으로 그러한 욕망이 충족되기도 하고 혹은 좌절되기도 한다. 이 시퀀스에서의 변화는 이야기의 중심축을 신성과 인간으로 보았을 때 그 무게중심이 신성에서 인간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되며, 그 끝은 그 욕망이 충족되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마지막 시퀀스는 <탑상이 세속적 시공간에서 소멸하다>로 요약할 수 있는데 여전히 탑과 불상이 많이 세워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신성한 기원을 갖지도 않으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힘도 갖지 못한다. 탑과 불상은 인간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지기도 하며, 이제 탑상은 더 이상 어떤 능동적인 힘을 가진 작인이 아니라 불에 타고, 파손되고, 소멸되는 물질성에 갇혀버린다.

이러한 시퀀스 분절을 통해 얻은 「탑상」편의 플롯은 성스러운 시공간이라는 행위향이 탈신성화되는 비극적 플롯으로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역사서술자의 이러한 비극적 인식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이것은 서술상의 곳곳에서 드러나는 부처의 연(佛緣)이 다했다는 인식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서술자는 이때의 불연(佛緣)을 신화적이고 순환적인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와 인과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탑상 편이 「기이」편과 마찬가지로 각 조의 배열이 시간적 배열을 따르고 있으며, 그러한 체제에 따라 일종의 환유적 읽기가 가능함을 밝혔다. 만일 이러한 방식이 타당성을 갖고,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된 「기이 편에도 적용해본다면, 역사서술의 대상이 각각 불교와 신이로 대별될 때 어떠한 서술상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혹은 공통점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만일 유사한 플롯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것으로 『삼국유사』를 새롭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열규, 「한국문학과 비극적인 것」, 『한국문학과 민속연구』, 일조각, 1975, pp.192-193.  
 김영태, 「삼국유사의 체제와 성격」, 『동국대논문집』 13집, 1974, pp.11-28.

- 김정경, 「연기론의 서사화: 삼국유사의 서사화 방식과 인식체계」, 『시학과 언어학』 2, 시학과언어학회, 2001, pp.231-251.
- 이기백, 「삼국유사의 편목구성」, 『불교와 제과학』, 동국대출판부, 1987, pp.981-995.
- 공임순, 「삼국유사의 역사 서술 방식에 대한 일고찰」, 『서강어문』 제11집 1995. 11, pp.161-176.
- 김두진, 「삼국유사의 체제와 내용」, 『한국학논총』,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0, pp.1-26.
- 송효섭, 「명사적인 것에 각인된 동사적인 것의 기억들: 탐과 불상 편의 상징 커뮤니케이션」, 『초월의 기호학』, 소나무, 2002, pp.205-278.
- 송효섭, 『삼국유사의 환상적 이야기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 서강대박사논문, 1989, pp.8-15.
- 윤주필, 「삼국유사의 체제와 주제 — <감통>편의 체제 구성원리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15집, 한양대, 1989, pp.125-158.
- 윤지영, 「영과 진 사이: 탐상편을 중심으로」, 『시학과 언어학』 2, 시학과언어학회, 2001, pp.253-284.
- 이기백, 삼국유사 탐상편의 의의, 두계이병도박사구순기념논총, 지식산업사, 1987.
- 조현우,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 조의 은유적 이해」, 『한국고전연구』 11,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pp.182-212.
- 홍윤식, 삼국유사와 탐상, 『삼국유사와 한국고대문화』, 원광대출판국, 1985, pp.58-90.
- 노스롭 프라이,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1993, pp.53-64, pp.288-312.
- 로버트 스킨즈, 「언어, 서술, 반서술」, 석경징 외 역, 『현대서술이론의 흐름』, 솔, 1977, pp.110-115.
- 아리스토텔레스 저, 천병희 역, 『시학』, 문예출판사, 1994, p.47.
- 제라르 주네트 저, 최애리 역, 원텍스트 서설, 김현 편, 『장르의 이론』, 1987, p.69.
- 헤이든 화이트, 「리얼리티 제시에서의 서술성의 가치」, 석경징 외 역, 『현대서술이론의 흐름』, 솔, 1977, pp.190-195.
- 헤이든 화이트, 『19세기 유럽의 역사적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91, pp.11-60.

ABSTRACT

A Metonymical Reading of 'Tapsang' in 'Samgukyusa'

Yoon, Yae-Young

In this study, I had searched for the emplotment of historiography and the perspective of historiographer in 'Tapsang' in 'Samgukyusa'. It can be worked out with metonymical reading.

At first, We need some paraphrase of whole text. And then, they could make some sequences: A pagoda and an image of Buddha come from the space and the time of the Sacred → Men respond to the call of the Sacred → the Sacred respond to the men's prayer → A pagoda and an image of Buddha are wasted and disappeared.

We can find out of some story from these series of sequences: The pagoda and the image of Buddha that had the origin and power of the sacred go far away. And this story cannot be constructed by reading separately the stories of 'Tapsang'.

This story can be named of 'the falling of the history of Sacred'. Then, what can explain the tragic perspective of this historiographer? We can find some narration about that karma of Buddha is reduced. The historiographer see the karma of Buddha not the logic of the mythos and the circular but the logic of cause and effect that have a relation with vernacular history of human. It is closer to the tragic perspective rather than the expect of the revival or lasting of the history of the Sacred.

**Key Words** Samgukyusa, meta-narrative, metonymical reading, tragic plot, the history of the sacred

논문투고일 : 2007. 9. 30.  
심사완료일 : 2007. 10. 31.  
게재확정일 : 2007. 12. 5.